



마스크·장갑·우산... 황사가 와도 씩씩한 등교

창을 파고드는 햇볕이 부족 포근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은 더욱 경쾌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러 있던 세상이 와글와글 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온갖 꽃들이 색색의 꽃망울을 터트릴 테고, 살랑살랑 향긋한 봄바람도 불어오겠죠. 봄은 희망으로 가슴을 부풀게 하는 매력적인 계절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나 봅니다. 따사로온 봄빛은 피부의 적 자외선을 담고 있고, 살랑살랑 봄바람은 거대한 중국 대륙의 흩먼지를 싣고 옵니다.

노란 황사비가 내리던 며칠전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등굣길에 나선 두 꼬마 숙녀를 만났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황사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니만, 설레는 3월의 등굣길에 일찌감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부슬부슬 비까지 내리면서 아이들은 우산까지 들고나섰습니다.

뿌연 먼지와 황사비가 반가울리 없겠지만 아이들은 알뜰달콤 한 우산을 쓰고 학교 가는 길이 신나기만 합니다.

한바탕 황사가 휩쓸고 지나간 하늘은 맑고 깨끗하지만 합니다. 황사가 잦다는 일기예보. 이런 예보는 빛나기도 좋을 듯 합니다.

/오광복기자 mjna@kwangju.co.kr

리빙 센스

검정 옷 관리하기

검정 계통의 옷은 세련된 멋을 내는데 좋지만 먼지가 잘 묻고, 물이 빠지기 쉽습니다. 검정 옷의 관리법을 알아봅시다.

- 스퍼지로 먼지 털기
먼지 털는 솔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다 보면 털이 빠져 오히려 옷이 더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펀지로 가볍게 털어주면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소금물에 물 빠짐 방지
새 옷을 세탁할 때 물이 빠져 다른 옷까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검정 옷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미리 소금물에 담가두었다가 세탁을 하면 물이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맥주로 색감 유지
몇 번 빨래를 하다 보면 본래의 선명한 검은색이 바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탁 후 맥주 섞은 물에 옷을 담가 두었다가 햇볕에 말려주세요. 선명한 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유머

■어느 치료 의사의 환자 : 이 하나 빼는 데 얼마지요?
의사 : 2만원입니다.
환자 : 이 뺄는데 단 일분도 안 걸리는데요?
의사 : 원하시면 천천히 뺏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명의
한 여자가 의사를 찾았다.
“선생님! 저에게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항상 방귀를 끼는데 이상하게 제 방귀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여기 들어온 이후로 한 열번은 귀였을 겁니다”
환자의 얘기를 들은 의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심각한 상태군요. 우선 이 약을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여자가 와서 의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 주셨길래 병이 낫지는 않고, 방귀에서 심한 냄새가 나죠?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말했다.
“자! 코는 고쳤으니 이번엔 귀를 고쳐 봅시다!”

■가슴이 작은 여자
가슴이 아주 작은 여자가 있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속옷을 입자 남편이 한마디 했다.
“가슴도 작는데 뭐하러 브래지어를 하나?”
그러자 그녀가 남편에게 한마디 했다.
“내가 당신 팬티 입는 것보고 뭐라고 합디까?”

■알고올 테스트
한 남자가 술집에 들어와서 맥주 한 잔을 시켰다. 술이 나오자 그 남자는 술을 마시면서 셔츠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한 잔을 다 마신 남자는 또 한잔을 시켰고, 계속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면서 술을 마셨다.
남자가 술을 또 시키자 술집 주인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왜 자주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겁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주머니 안에 우리 마누라 사진이 있는데, 마누라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 취해서 집에 갈 시간이거든요.”

■나리별 변지 점프
변지 점프를 하기 위해 각국의 학생들이 모였다.

조교는 겁에 잔뜩 질린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뛰어내리기 전에 나리별로 각기 다른 한마디씩을 외쳤다.
“신사답게 뛰어 내려라.”
그러자 영국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뛰어내렸다.
“예술적으로 뛰어내려라.”
이 말은 들은 프랑스 학생도 멋지게 변지 점프를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겁에 질려있는 한국학생을 보고 조교가 한마디 하자 학생이 주저 없이 뛰어내렸다.
“내신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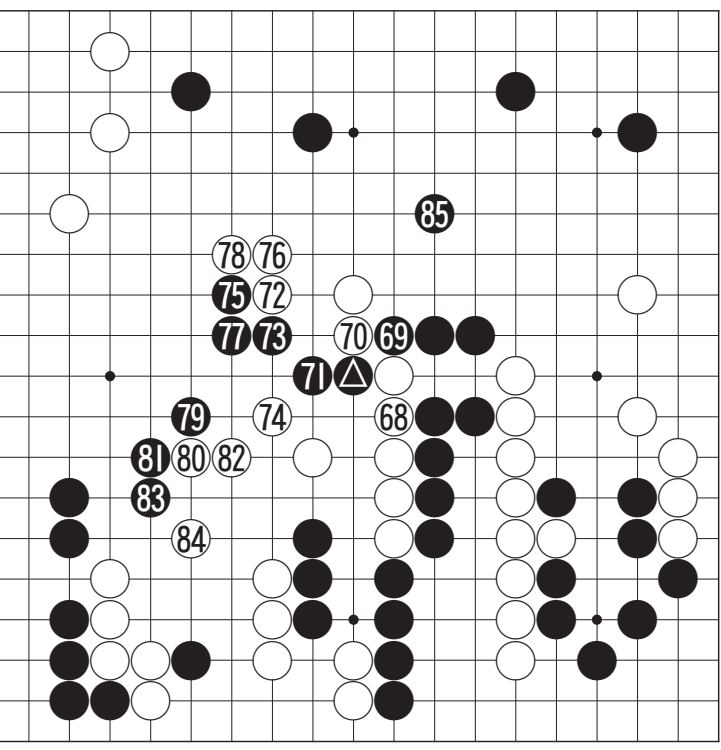
■교회가기 싫어요
아들 : 어머니, 내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어머니 : 그게 무슨 말이니, 주일인데~
아들 : 내일 김 장로가 기도하는데 보나마나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길게 할거라고요.
어머니 : 그래도 가야지.
아들 : 게다가 성가대는 도대체 화음이 안 맞았어요.
어머니 : 그래도 가야지.
아들 : 나 내일 늦잠 자고 싶어요.
어머니 : 예야, 그래도 가야 한다. 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니.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11일(음 2월 4일 庚戌)

子	36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실물은 없으리라. 48년생 단순한 방법이 지름길이니 편하게 생각하라. 60년생 현실보다는 큰 꿈을 가져라. 72년생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항하라. 84년생 모든 일을 철저히 하라. 행운의 숫자 : 11, 34
丑	37년생 심년 목은 체통이 내려간다. 49년생 해결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걱정을 버려라. 61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희망도 보인다. 73년생 옛 친구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다. 85년생 앞만 보고 돌진하라. 행운의 숫자 : 07, 40
寅	38년생 재물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된다. 50년생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채워진다. 62년생 주변의 친척을 찾아보라. 74년생 밖의 일은 오랫동안 부탁하고 내부의 일을 잘 챙겨라. 행운의 숫자 : 17, 29
卯	39년생 옛 친구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51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라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 63년생 아침은 즐거우나 오후는 무료하다. 75년생 주변의 이성에 귀가 인기가 상승한다. 행운의 숫자 : 03, 45
辰	40년생 가정불화는 피하라 불연이면 이별 수도 보인다. 52년생 자신의 일을 조심하라 스스로 만든다. 64년생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라. 76년생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05, 26
巳	41년생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리라. 53년생 인생의 또 한 번의 도전을. 65년생 걱정을 버려라 대부분의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내용이다. 77년생 옳은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14, 38
午	42년생 오래된 문서가 큰 재물로 변한다. 54년생 친구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온다. 66년생 친구와 좋은 곳에서 일을 꾸민다. 78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엄매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09, 36
未	43년생 오늘은 고통이지만 내일을 기약하라. 55년생 다투지 말고 협상에 응하라 끝자루를 쥐었다. 67년생 달콤한 말은 독이니 속하지 마라. 79년생 여유 있게 행동하면 득이 되고 급하면 실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35
申	44년생 기본 좋은 하루가 되리라. 56년생 작은 것이 소중한나 오히려 주의하라. 68년생 불요불급한 구애로 소비가 생긴다. 80년생 생김 돈보다는 소비가 크니 마음을 굳게하라. 행운의 숫자 : 21, 25
酉	45년생 지식보다 지혜를 보여줘라. 57년생 너무 무리한 일은 벌리만 손재가 크다. 6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긴다. 81년생 代價가 없는 인연은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8, 37
戌	46년생 마음이 허하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58년생 직장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70년생 자식에게 신경을 써라 자식은 자신의 희망이다. 82년생 소원했던 여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 행운의 숫자 : 19, 31
亥	47년생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손해도 비켜간다. 59년생 하루가 대단히 불편하리니 지낸다. 71년생 멀리서 귀인이 찾아온다. 83년생 옛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잠을 자다가도 떡을 얻는다. 행운의 숫자 : 04, 4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강요당한 싸움 6보(68~85)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정찬근 6단

흑 ▲가 치열한 수로 심재욱 6단 빠른 발을 묶는 신랄한 급수였다. 이때 제일감은 '참고도'의 백 1로 붙이는 수다.

심재욱 6단 이 수를 보고 별 생각없이 일자로 달렸던 것인데, 그러면 흑은 2로 치반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흑 4면 백 5로 잊지않을 도리가 없고 흑 6으로 끊는 수가 통렬하여 8까지 백이 망하게 된다.

뒤늦게 '참고도'의 수단을 발견

한 심재욱 6단 고심 끝에 68로 잇고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찬근 6단 강요에 의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기선을 뻗기고 있다.

흑은 차단의 효과로 흑 79의 요소를 점령하여 83까지 좌변에 살을 붙이고 있는데 반해 백은 84까지 지연 결에만 급급하고 있다. 흑 85로 지키는 자세도 좋아 흑 ▲의 가슴이 성공한 한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김기용 신인왕 노린다

김기용 4단이 제18기 비씨카드배 신인왕전 우승컵에 한 발 다가섰다. 김기용은 10일 서울시 한국기원에서 열린 대회 결승 1국에서 김승재 초단을 상대로 169수만에 흑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김기용은 12일에 예정된 2국에서 이기면 신인왕에 등극하게 된다. 이 대회에서 김기용은 원성진 9단, 홍성기 5단 등 우승 후보들을 줄줄이 격파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10분에 40초, 초읽기 3회이며 상금은 우승 2천500만원. 본격 기전 우승경력이 없는 기사 가운데 연령에 관계없이 입단 후 만10년 이내 기사들이 출전한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14>

I'm about to go to bed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A : I'm about to go to bed.
B : We'd better take the trash out before we forget.
A : I'll do it now.
B : OK, I'll help.

A :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B : 잊어버리기 전에 쓰레기를 내놓는 것이 좋겠어요.
A : 지금 할게요.
B : 좋아, 내가 도와줄게.

* 그 가게로 가보시죠.
= We'd better go to the store.
* 잠을 좀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We'd better get some sleep.
* 라디오를 끄시다.
= We'd better turn off the radio.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14>

うとうとしてどうしたの?
꾸벅꾸벅 졸고 왜 그래?

A : 中村(なかむら)、うとうとしてどうしたの?
B : 急(きゅう)に眠氣(ねむけ)が襲(おそ)って來(こ)ちゃって。
A : まだ朝(あさ)までグダ(ぐだ)してたでしょう。
B : 當(あた)り、一度(いちど)始(はじめ)たら、止(や)められなくなっちゃうんだ。

A : 나카무라, 꾸벅꾸벅 졸고 왜 그래?
B :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A : 또 게임으로 밤을 샌 거구나.
B : 정답.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말이야.

うとうとする : 꾸벅꾸벅 졸다
當(あた)り : 정답, 적중
始(はじめ)める : 시작하다
止(や)められなくなる : 그만 둘 수 없게 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v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91>

你上几年级?
몇학년입니까?

A : 你上几年级?
nǐ shàng jǐ niánjí
니 상지 디엔지

B : 大学一年級。
dàxué yī niánjí
다학제기 니엔지

A : 學校远嗎?
xuéxiào yuǎn ma
숙학지원오 유엔 마

B : 不太远。
hǔ tài yuǎn
후 타이 유엔

A : 离学校远嗎?
lí xuéxiào yuǎn ma
리 학교 거 멀나까?

A : 离学校远嗎?
lí xuéxiào yuǎn ma
리 학교 거 멀나까?

B : 不太远。
hǔ tài yuǎn
후 타이 유엔

你上几年级? 학년
远 멀다

<광주중국어학원(삼우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70>

踏青(담청)
밭을 답, 푸를 청

담청(踏靑)은 '푸른 풀을 밟는다'는 뜻으로 봄나들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3세기경 위진(魏晉)시대부터 음력 3월 3일을 전후하여 풍경이 수려한 강이나, 계곡을 찾아 자리를 마련하고 악기를 가지고 노는 풍습이 있었다. 남방지역에서는 2월 2일, 북방지역에서는 5월 5일 또는 9월 9일에 하는 예도 있으나, 대개는 청명절(淸明節)의 풍류행사이기 때문에 춘유(春遊)라고도 부른다. 따뜻한 봄을 느끼기 위해 교외(郊外)에 나가 상춘(賞春)하는 것을 '담청'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담청은 성행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음력 3월 3일에는 산과 들에 나가 꽃놀이를 하고 봄 풀을 밟으며 담청을 즐겼고, 9월 9일이면 산에 오르는 등고(登高)를 즐겼다. 조선 초기의 풍속화가 혜원(惠圓) 신윤복(申潤福, 1758-?)은 젊은이들의 봄나들이를 '연소담청(年少踏靑)'이라는 제목으로 그려놓았다. 봄옷으로 단장한 한량(閑良)과 기생(妓生)들이 봄맞이하는 행렬의 그림이다.

담청을 하면서 흰나비를 보면 상을 당하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 해 운수가 좋다는 속설(俗說)도 전해온다. 집안에만 있던 부녀자들도 이때에는 야외에 나가서 진달래꽃을 넣고 화전(花煎)을 지져먹거나 쑥을 뜯어 쑥떡을 해 먹으면서 봄을 즐겼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